

MANAS

Iha Timor-Leste

3월 창간호 특집
발행일자 2013년 3월
발행인 : 라온아띠 9기
동티모르팀

즐거움의 시작일까?
고생길의 시작일까?
머나먼 타향길

(밀착취재) 9기 동티모르팀,
그들은 누구인가?

3월 특집기사
〈떼뚝 클라쎬 Tetum Klase〉

PINTA LAI!

What did you do?
Imi halo saida?

두근두근 떨리는
첫 만남

Board Member Briefing

성당에서 아이들과 첫 만남,
센터에서 스텝들과 첫 만남.

창간호 특별 부록
〈다같이 배워볼까요 떼뚝?〉



INDEX

- | | | |
|-----------|--------------------------------------------|----------|
| 01 | (밀착취재)9기 동티모르팀, 그들은 누구인가? | P. 2-6 |
| 02 | What did you do? Imi halo saida? | P..7-34 |
| 03 | 3월 특집기사 <떼똌똌 클라쎌 Tetum Klase> | P. 35-37 |
| 04 | 창간호 특별 부록 <다같이 배워볼까요 떼똌똌?> | P. 38-39 |

**(밀착취재) 9기 동티모르팀,
그들은 누구인가?**



강은아 (Amelia dos santos)

그녀의 식사는 배부를 때 시작된다
떼뚝어 선행반 반장

DJ put it back on!

계란요리의 대모

수영장 국가대표

아주 조금 준비된 인재

뭐든 찢끔찢끔 배워 본적 있음

강남매 동생

요리를 글로 배웠어요

그녀의 특기=세상에서 가장 불편
한 자세로 아이들 안아주기

한동윤 (Nina suarez)

요리계의 정신적 지주
떼뚝어 나머지반 반장
관따(노래)족 시민
그녀의 취침 멘토=혜민스님
멈추면, 비로소 잠에 드는 것들
(한 달째 63페이지)
우리 팀 사진기사
'언어 따위 필요 없다'
그녀의 소통은 온몸으로
아이들의 워너비
욕쟁이 할매





강형규 (Mario pedro da costa)

부채도령

강남매 오빠

헌터 마리오

야매 한국어 강사

티모르 최장신

그의 모든 것은 군대에서

나와라 외장하드! (500gb)

의자왕

떼뚝어 나머지 반의 떠오르는

샷별

송현도(Nelson da silva)

관따(노래)족 수령님

떼뚝어 나머지반 부반장

최단기간 현지화된 피부색

센터 여자아이들의 아이돌

Mr.Zildo의

시니어 축구부 꿈나무 회원

수영장 김연아

그의 주특기=트리플 악셀

요리 테러리스트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What did you do?
Imi halo saida?**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출국	8 도착/스텝 첫만남	9
10 아이들과 첫만남	11 떼뚱 수업 시작 (~4/8)	12	13	14	15	16 보드멤버 브리핑
17	18	19	20	21	22	23
24 첫 정전	25 부활절행사	26	27	28 페인트칠	29	30
31						

머나먼 타향길

What did you do? Imi halo saida? MANAS



출발 당일 새벽, 우리는 낮선 동티모르에서의 여정에 대한 불안과 설렘이 뒤엉킨 마음을 가진 채 인천공항 행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차창 밖 아직 어둑어둑한 길에 비가 내렸어요. 필리핀 팀을 시작으로 우리도 출국 수속을 준비했어요. 뜻밖에 행운으로 우린 비즈니스 석으로 티켓이 level up!하였어요. 우리는 여정 초반에 행운을 등에 얹고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

온 행운을 만끽했어요.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6시간의 짧고 달콤한 비행이 끝난 뒤 발리 공항에 도착 하니 낮선 날씨, 낮선 사람, 낮선 풍경들이 우리를 맞이 했어요. 그리고 초보 단원들에게 시련의 시간이 찾아 왔어요.한국에서 호텔 대신에 선택했던 24시간 사설 라운지는 밤12시에 문을 닫는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우린 발리 공항 스타벅스 구석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밤을 새었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우리는 당황했고 밤을 새는 동안 기쁨과 설렘의 감정에서 무료함으로 바뀌는 시간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였지만 아픈 사람도 없고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마음의 여유가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 순간을 즐겁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우리는 딜리로 가기 위해 움직였어요.발리에서 오버차지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심지어 발권까지 잘못되어 뛰어 갔는데 파일럿들은 오지 않았어요.

머나먼 타향길

MANAS

그래서 우리는 숨을 고르고 비행기에 탈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탄 우리는 정신을 놓고 자다가 기내식을 먹을 때 번쩍 잠을 깨었어요. 우리는 팀은 절대 비행기에서 손해 보는 법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딜리에 도착한 우리는 양동화 간사님을 만났어요. 양동화 간사님과 숙소로 향한 우리는 짐을 풀고 티모르에서의 첫날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은아: 사실 이 고생길을 자처한 건 우리들의 선택이었어요. 여태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간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문득 전 '자발적 불편'에 대해서 생각했지요. 왜 하필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개념이 불현듯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저것도 모두 경험이라는 생각에 흔쾌히 노숙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이 도우셨는지 우리의 비행기 좌석은 업그레이드 되었고 발리까지의 비행은 꿀맛 같았어요. 비행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비행기 안의 시설을 체험하느라 잠을 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정도였지요.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한 채. 발리공항에 나오자 많은 택시기사들이 호객행위를 하였고 처음에는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짐을 들고 다니며 공항 주위를 배회하는 건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머나먼 타향길

MANAS

요. 하지만 밥을 먹고 공항 라운지엘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시설이 괜찮았어요. 마지막 와이파이라 생각하며 가족들과 연락도 해보고, 페이스북에 글도 올려보고, '나는 가요~'를 외치며 발리에서 시간을 보냈죠. (동티모르에 와보니 여기서도 와이파이를 가끔씩 할 수 있더군요.) 그리고 12시가 지나 스타벅스에서 나머지 시간을 보낼 때는 조금 불편했지만 새우잠을 자기도 하고 팀원들과 박진감 넘치는 오목, 빙고를 하며 시간을 '잘' 보낸 것 같아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를 타고, 우린 씻지 못한 상태로 낯새 나는 첫인상을 남기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도착하였어요. 잘 도착하길 기도해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도 : 새벽 6시, 모든 단원들이 버스에 자신들의 짐을 싣느라 정신 없었던 시간이예요. 짐을 싣고 버스에 몸을 맡겨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며 마음 속에서는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기 시작했죠. 공항에 도착해 출국 준비를 하며 우리 팀이 느꼈던 기쁨과 설렘이 하늘에 통했는지 우리의 티켓이 업그레이드 되는 행운을 누리며 거침없이 발리로 향했어요. 도착해서 짐도 맡기고 저녁도 먹으며 마치 여행객이 된 것처럼 들떠서 발리 공항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행운만 있었던 것은 아니예요. 발리 공항에서 하루 머물기로 했던 라운지가 문제였던 것이죠. 물론 라운지 직원이 하하 자게 해줄 테니 더 많은 돈을 요구해 잠을 자고자 하면 잘 수도 있었지만 우리 단원들은 패스~ 발리의 24시간 스타벅스로 향했죠. 스타벅스에서 한명 한명 잠에 드는 모습을 보며 홀로 앉아 일기를 쓰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티모르에서 5개월 동안 있을 일들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걱정과 불안 등등. 순간 핸드폰에 적어 놓은 문구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1년 후에는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을

머나먼 타향길



낭비하고 있다. 소심하게 굴기에는 인생은 짧다' 이 문구를 항상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모든 슬픔과 힘든 기억들도 아름답게 남길 기대하며 라온아띠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형규 :난 꿈을 꾸고 있었다. 1차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발견한 학교 PC실, 내 생애 가장 길었던 2차 면접장, 최종 합격 전화를 받은 친구네 자취집, 머리를 꺾는 냉철한 강의와 뜨거운 토론이 뒤엉킨 교육장, 사

람 냄새 나는 여수Y에서의 삶에서도..심지어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도 난 꿈을 꾸고 있었다. 지난 1월, 나를 돌아보고 의심하고 깨지고를 반복하는 시간 동안 끝내 내가 생각했던 영웅적이고 자애로운 활동가의 모습은 나에게서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줄 알면서도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모습을 내심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행스럽게 이런 꿈은 동티모르로 가는 매 순간마다 깨지고 부서졌다. 낮선 발리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에 밤을 지새우며 노숙하는 순간, 수화물 무게가 오버되어 식은 땀을 흘렸던 순간, 발권이 잘못되어 공항 게이트로 달려갔던 순간, 그러나 출국 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승무원들 때문에 애태우며 기다렸던 순간...이 모든 변화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는 내심 꿈꿔왔던 나의 허영심과 오만을 우습게 만들었다. 딜리로 오는 이번 여정은 다시 한번 나를 내려 놓을 수 있

머나먼 타향길

MANAS

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동티모르에서 내 삶의 자세를 다지는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동윤 :드디어 동티모르에 간다는 기쁨, 설렘과 함께 우리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우린 편안한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며 발리까지 도착하게 되었어요. 발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덥고 습한 날씨가 우리를 맞이해줬어요. 낮선 땅에서 우리 4명만 있게 되니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것도 잠시였어요. 맛있는 저녁도 먹고 공항 구경도 하며 여유를 즐겼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12시까지 빵빵 터지는 와이파이와 시원함을 만끽하고 우린 또 시간을 보내기 위해 스타벅스로 왔죠. 스타벅스에서 우린 시간이 이렇게나 느리게 갈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아무리 게임을 하고 사진을 찍어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죠. 새우잠을 자고 씻지도 못한 채 초췌한 몰골로 우린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우린 딜리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딜리 공항에 마중 나오신 간사님들의 환한 미소와 함께 우리에게서 냄새 난다는 소리를 들으며 우린 무사히 도착했어요. 딜리에서 내가 라온아띠로써 살아갈 날들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센터 스텝들과의 첫만남

숙소에 짐을 풀고 센터로 간 우리는 센터직원들과 서로 통성명을 하고 서로에 대해 소개했어. 그리고 현지 스텝들이 직접 지어준 현지 이름을 받았지. 강형규씨는 Mario, 송현도씨는 Nelson, 한동윤씨는 Nina, 강은아씨는 Amelia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 이름을 받은 라온아띠 친구들은 타이스라는 환영의 의미를 자긴 알록달록하고 잇한 선물을 받았어. 이름도 받고 선물도 받은 아띠들은 몇몇 센터 아이들과 약간의 인사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왔어.

은아:사진으로만 보던 스텝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생각에 떨렸어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도착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소개를 시작하였어요. 제 순서에 한국 이름을 말하고 나이를 말하는 데, 우리나라와 달리 만 나이를 사용하는 이 곳에서 제 나이는 19살이었어요! 팀 평균나이가 흑~ 내려가더군요. 저희 소개 후 현지 스텝 분들도 각자 소개해주셨는데, 너무 긴장한 탓인지 이름과 얼굴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스텝 분들이 저희 이름



센터 스텝들과의 첫만남

을 지어주신다고 하실 땐 짧은 떼뚱어로 예쁜 이름을 지어달라며 말씀 드렸어요. 그 덕분에 Amelia라는 예쁜 이름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TV에서 보았던 동티모르 전통 환영 선물인 타이스를 받았을 때는 신기하고 괜히 반가웠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집에서 웹서핑하며 찾아보던 동티모르에 와있구나. 그 때 그렇게 상상해보던 그 곳이 이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텝 분들의 따뜻한 환영 그리고 마주쳤던 몇몇 아이들의 눈빛에서 큰 힘을 얻었어요. 활기찬 Amelia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현도:1박2일의 노숙 끝에 동티모르에 도착한 우리는 숙소에서 도착하자마자 샤워부터 했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니 동화 간사님께서 '오늘 인사 드릴래? 월요일에 인사 드릴래?' 라는 질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인사 드리겠다며 센터로 향했어요. 센터에 비록 총장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다른 스텝 분들이 우릴 너무나도 환대해 주었어요. 많은 스텝 분들이 우리의 한국 이름과 나이를 묻더니 잠시 후에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저의 새로운 현지 이름은 Nelson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 앞으로 영어 이름도 Nelson으로 바꿔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름도 받고 기념 선물도 받고 현지 스텝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니 아주 조금은 동티모르에 도착한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현지 이름도 생기고 숙소도 짐도 풀고 5개월간 다닐 센터에도 인사를 드렸으니 본격적으로 라온아띠 9기 동티모르 팀으로서 활동하기에 모든 준비를 마친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 Nelson으로 완전히 티모르에 녹아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스텝들과의 첫만남

MANAS

형규: 드디어 동티모르에 도착 했다. 우리 간사님들과 스텝들의 환영을 받으며 딜리 공항을 빠져 나왔다. 딜리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도 많고 꽤 큰 건물도 종종 보이며 도로도 정비가 잘되어 있어 차량 통행이 많았다. 물론 딜리가 티모르의 수도라서 그런 거겠지만 숲이 우거진 오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잠깐 휴식을 취한 뒤 센터 스텝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길을 나섰다. 숙소와는 차로 15분쯤 거리에 센터가 위치해 있었고 현지 센터 스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어색할 틈도 없이 센터 스텝 분들께서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환영해 주셨다. 물론 언어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았지만 티모르에서 환영의 의미로 목에 걸어주는 전통 선물 타이스도 직접 목에 걸어 주시는 모습에서 그 분들께서 우리를 얼마나 진심으로 환영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현지인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불릴 수 있게 우리 개개인마다 현지 이름을 직접 지어 주셨다. 나는 마리오라는 현지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 부르기 쉽고 외우기도 쉬운 이름인 것 같아 매우 만족스러웠다.

전체적인 센터 스텝과 센터에 대한 나의 인상은 매우 따뜻했다. 이전 기수가 떠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스텝들은 물론이고 센터 주변 현지 아이들까지 우리에게 친숙하게 말을 붙이거나 웃으며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했다. '그 동안 한국에서 난 낯선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과도하게 경계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유쾌하고 따뜻한 현지 스텝들과 센터 주변 아이들을 보며 앞으로 센터에서 활동이 설레고 기대된다.

동윤: 숙소에서 처음 센터로 가는 동안 설레는 마음 반 떨리는 마음 반 이였지요. '센터는 어떨까? 현지 스텝들은 어떨까?' 여러 생각이 뒤엉킨 채 센터에 도착했어요. 스텝

센터 스텝들과의 첫만남

MANAS

들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를 너무나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해주어서 기뻐고 생각하지도 못한 선물이며 환영의 의미로 우리 목에 걸어주신 타이즈도 너무 예뻐지요. 하지만 나에게 하나 걱정이 생겼어요. 의사소통을 테툼어로 해야 되어서 조금 부담감도 생기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온 것 같아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걱정보다는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로 생각했어. 그리고 이날 스텝 분들이 현지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나는 'Nina' 라는 이름을 받았지요. 처음은 이름이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 스텝들 그리고 누구나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기쁘고 새로운 나의 이름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성당에서 아이들과 첫만남

What did you do? Imi halo saida?

MANAS

아띠들은 일어나자마자 센터로 향했어. 왜냐고? 이 날은 센터아이들이 성당에서 노래를 하는 날이었거든. 성당에 가기 전에 센터에서 마지막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러 갔지. 아이들은 한껏 멋을 내고 와 있었어. 처음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띠들과 아이들 사이에는 어색함과 궁금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 아띠들은 연습이 마칠 때 까지 기다려 아이들과 함께 성당으로 향했어. 국교가 가톨릭인 동티모르의 종교를 체험해보는 경험이기도 했지. 성당에서 아이들과 얼굴을 익히고 함께 만날 날들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왔어.



은아: 센터에 매일 오는 아이들부터 가끔씩 오는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까지 다양하고 많은 동티모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아는 때뚝이라고는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 그리고 나, 너, 우리 정도였기에 거의 구경 수준이었어요. 글을 써놓고 보니 서로가 서로를 구경한 날이네요. 미사 도중,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 고개를 들면 적어도 한 명은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매일 간다

성당에서 아이들과 첫만남

MANAS

면 아마 저희 팀원들은 연예인 병에 걸릴 거예요. 전 어쩌다 보니 아이들 사이에,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굉장히 어색하고 떨렸어요. 아마 아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외국인 한 명이 오더니 옆에 앉더니? 책을 같이 보더니? 날 보고 웃네? 할 수 있는 게 웃는 것 밖에 없으니 눈 마주치는 사람마다 눈웃음으로 어색함을 없애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 미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참여하려 했어요. 테뚀어는 모르지만 영어는 읽을 줄 알기에 뜻 모르는 테뚀어 성가를 열심히 따라 불렀어요.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면서요. 첫만남부터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다니, 정말 큰 행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도:사실 어떠한 종교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티모르는 우리와 다르게 국교를 갖고 있는 나라이니 이 나라의 국교인 가톨릭을 이해하는 것이 이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큰 거부감 없이 성당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성당에 가는 날이면 모두가 자신들의 가장 예쁘고 좋은 옷을 골라 입는다는 귀띔을 받았기에 우리도 가장 격식을 차리고 성당으로 향했어요. 성당에 가니 우리 센터아이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을 보였어요. 성당에서 미사를 보는 중에도 계속 우리를 향한 시선이 쏟아졌지요. 사실 현지인들은 잘 보지 못하는 외국인이 자신들이 다니는 성당에 왔다는 것이 신기해서 우리를 쳐다본 것이겠지만 제대로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현지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모습에 왠지 모를 환대를 받은 기분에 즐거움을 느꼈어요. 비록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금방 친해질 수 있겠다는 왠지 모를 안도감과 행복한 기운을 느끼며 숙소로 돌아왔어요. 종교를 떠나서 무언가 힐링을 받는 듯한 기분을 받아 오후 내내 웃음이 나던 하루였지요.

성당에서 아이들과 첫만남

형규:동티모르에서 맞이하는 첫 주말,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예림 간사님께서 성당에 가는 것이 어떨것냐고 제안하셨다. 아직 정식으로 인사하지 못한 현지 YMCA아이들이 성당에서 미사곡을 합창하는 날이어서 현지 문화도 접하고 아이들과 인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셨다. 우리는 흔쾌히 동의하고 우선 아이들이 모여 있는 센터로 출발하였다. 지난번 스텝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찾아갔을 때 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었다. 아이들은 이번 미사에서 합창할 노래들을 현지 스텝의 지휘와 동네 청년들의 기타 반주에 맞춰 연습하고 있었다. 아이들 모두 깔끔하게 차려진 옷을 입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예뻐 보였다. 이번 합창을 인솔하고 계시는 현지 스텝 Maun ZERO께서 우리를 현지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각각 소개해주셨고 아이들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인사해주었다. 승합차를 개조하여 만든 현지 대중교통, 미끄로렛을 타고 우리는 성당으로 향했다. 좁은 승합차에 많은 아이들과 같이 살을 부대끼며 가니 비록 아직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벌써 친해진 느낌이었다. 이전 미사가 끝나지 않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성당 모퉁이 공터에서 한번 더 합창할 미사곡을 연습했다. 우리도 옆에 서서 가사집을보며 따라 불렀는데 떼뚱어가 익숙하지 않



성당에서 아이들과 첫만남

MANAS

아서 가사 읽는데 급급했다. 미사가 시작되고 순서에 맞춰서 아이들이 미사곡을 불렀다. 원래 합창하기로 하고 연습했던 아이들 외에 오늘 찾아와 급하게 합류한 아이들이 많아서 가사 숙지도 잘 안되고 서툰 면이 많았지만 합창하는 아이들과 반주하는 청년들 모두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이 전문 합창단 못지 않았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여 얼굴 익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동윤: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처음 만나는 시간 이었어요. 센터로 가니 아이들은 예쁜 옷을 입고 성당에서 부를 성가를 연습 중 이었어요. 우리가 센터로 가니 아이들의 모든 눈들이 우리를 향했죠.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어설픈 테툼어로 이름을 물어보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할 수 있는 테툼어가 별로 없어서 아이들이 성가 연습하는 것을 구경했어요. 성가연습이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미끄로렛을 타고 성당으로 향했어요. 성당에 가니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연예인의 기분이 이런 걸까요? 어디를 쳐다보나 누구나 한 명쯤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피곤하기도 하고 더위에 지치기도 했지만 처음 와본 미사에 참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성당에 처음 가본 것 보다 아이들과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중점이 된 것 같아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쁜 웃음을 지어주는 아이들을 만나서 너무 기쁜 하루였어요.

Board Member Briefing

이틀 전 이사진들과의 브리핑에 대해서 들은 아띠들은 서둘러 이사진들께 보여드릴 브리핑 준비를 했어. 그리고 동화간사님과 Xefi(총장님)께 검사를 맡았지. 이사진들은 중요한 분들이니까. 아띠들이 차후에 진행 할 ART, SIENCE, DANCE 수업의 목적, 특징 등을 정리해서 발표자료들을 만들었어. 드디어 당일, Xefi와 만나 YMCA 보드멤버를 만나러 갔어. 보드멤버는 동티모르 대통령의 동생이셨어. 목사님이시기도 했지. 그분은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더 선호하셨어. 목사님 앞에서 아띠들은 그간 준비한 PPT를 보여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지.

은아:한 나라의 대통령 동생을 이렇게 만나는 날이 제게 또 올까요? 그 앞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해 브리핑하다니. 한국 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브리핑을 준비는 제게 아띠 클라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ART, DANCE, SIENCE 수업에 대해 설명하려니 전에 생각들보다 틀 잡히고 자세한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동티모르 아이들의 어떤 면을 좀 더 키우면 좋을까, 아이들의 생활환경과 유대관계는 어떤가 등에



Board Member Briefing

대해서도 생각해보면서 프로그램을 짜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담아낸 PPT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사장님은 저희가 준비한 브리핑을 진지하게 지켜봐 주셨어요. 제 소개를 할 땐 용기 내어 떼뚱어로 인사와 소개를 해보기도 했어요. 다행히 이사장님이 웃으며 좋게 봐주셨어요. 남은 5개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흥미로운 경험이었답니다.

현도: 두둥! 우리의 계획에 없던 우리 수업들에 대한 브리핑 준비를 하라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다 함께 앉아 회의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는 아직 현지언어가 서툴기 때문에 영어로 브리핑을 준비했어요. 사실 우리의 수업계획이 확실히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회의가 끝나갈 무렵 어느 정도 우리의 수업이 체계가 잡힌 기분이 들어 뿌듯함을 느꼈지요. 이번 브리핑에서 발표자로서 우리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영어로 정리하고 혼자 연습도 해보며 많이 긴장을 했었어요. 사실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영어로 브리핑을 한 적은 별로 없었고 이사진들에게 하기로 한 브리핑이 대통령 동생분에게만 브리핑을 하기로 변경되면서 왠지 모르게 긴장감은 배가 되었어요. 브리핑을 하며 난 그 긴장감을 해소하지 못했는지 굉장히 빠르게 브리핑을 이어 나갔지만 이사님은 우리를 잘 봐주신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어요. 대통령 동생이신 이사님은 목사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딜리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강의 중이신 교수님이 시기도 했어요. 덕분에 현재 동티모르의 상황과 동티모르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 동티모르라는 나라의 특성과 역사 등을 이해하기 쉽게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말씀 드리려고 시작되었던 자리였지만 오히려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울 수 있었기에 잊지 못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Board Member Briefing

형규: 오늘은 동티모르 YMCA 이사진을 만나 뵙는 중요한 날이다. 우리는 사전에 미리 간략한 팀원 개개인 소개와 현지 아이들에게 앞으로 하게 될 수업에 대해서 과학, 예술, 댄스로 나누어 수업 목적과 방법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만들었다. 우리 모두 높으신 분들에게 첫 인상을 좋게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꽤 긴장했다. 특히 이사장님께서는 현지 대통령의 친동생이라고 하니 더욱 떨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같이 동행하셨던 ORASIO총장님도 긴장하신 모습이셨다. 정원이 딸린 꽤 넓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브리핑을 준비하였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현지 YMCA이사진 중 이사장님께서만 참석하시는 소규모 브리핑이었다. 그러나 이사진 중 가장 높으신 분만을 위한 자리인지라



더욱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각자 간략한 자기 소개를 이사장님께 드리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배웠던 땀뚱은 이미 내 머리 속에서 사라져 버린 지 오래고 영어로 겨우겨우 내 소개를 마쳤다. 우리 팀원 중 은아 단원만이 땀뚱으로 자기 소개를 했는데 이사장님께서도 흡족해 하시며 한층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이어진 우리 수업 '아띠 클라쎄' 설명을 들으시는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Board Member Briefing

MANAS

발표를 경청해주시고 환영의 인사와 덕담도 해주셨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진행할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사장님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활동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동윤:이사장님과 첫만남을 위해 깔끔하고 예쁜 옷을 입기 위해 3번이나 옷을 갈아입으면서 까지 준비했던 날이었어요. 이사장님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니 떨리기도 하고 내가 준비했던 말들도 생각나지 않아서 어떻게 시간이 흘러 간지 모르겠어요. 이사장님께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나갈 아띠 클라씨에 대해 설명해 드리니 긍정적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했어요. 나는 그 동안 막연하게 한국에서 '동티모르에 가서 과학,미술 수업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수업이 목적과 주제 그리고 방법 등 이제는 확실한 방향성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겨서 좋았어요. 우리를 좋게 봐주시고 환대해주시는 이사장님을 만나서 좋았던 하루예요.

부활절 행사

오늘은 부활절 행사가 있는 날이야. 종교적 의미가 있는 행사였지만 부활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문화의 일부분에 녹아 드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행사를 준비하러 센터로 갔어. 행사를 함께 준비한 후 우리는 행사를 위해 모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센터 주위를 도는 부활절 미사를 드렸다. 형규는 9번째 십자가를 들고 걷는 것으로 참여했고, 동윤, 은아, 현도는 주민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행사에 참여했어.

은아: 부활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떨것냐고 제안을 들었을 때 가톨릭 행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부활절을 준비하는 미사가 따로 있는 건가? 긴가민가하며 센터에 발걸음을 옮겼어요. 외부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미사를 외부에서 특별하게 드리나? 근데 왜 의자는 없지? 여러 의문점을 가지고 기다린 결과 미사는 아니었고 코스를 돌며 십자가를 지고 기도를 드리는 행사더군요. 준비하는 장소를 기웃거리다가 오빠들 중 한 명을 불러달라는 말에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형규 오빠를 짹싸게 불렀어요. 십자가를 지



부활절 행사

게 된거죠! 축하해. 아, 이 행사에 대해 나중에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행사였어요. 한국에서도 한다던데, 맞나요? 튠, 형규오빠는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 나머지 팀원들은 아이들과 손을 잡고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었어요. 저는 이 행사를 동티모르YMCA에서만 주최하는 거기에 몇 명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와 스텝들 그리고 저번 성당 일을 도와준 청년들 정도? 행사가 시작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미사에 참여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아, 이게 바로 국교의 힘인가? 이게 과연 종교행사라고 볼 수 있는가? 진짜로 문화행사의 하나가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들보다 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사였어요. 아이들은 아직 뜻은 모르지만 어른들을 따라 입에 기도문을 외우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십자가의 길 코스는 마을 한 바퀴를 도는 거라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동네의 집집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곳에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두들 우리가 지나갈 때에는 그에 맞는 기도문을 같이 입으로 외고 있었죠. 행사에 참여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잠깐이라도 참여하는 모습들이 그리고 어렵지 않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음이 신기했어요. 국교를 과연 종교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일까.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있는 모습을 보며 새삼 신기했어요. 저는 기독교 모태신앙으로 여러 기독교 행사에 참여해봤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인 적은 없었어요. 대부분 주최측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거나 혹은 그 사람들의 아는 사람들까지가 한계였죠. 동네사람들이 집 앞에 나와 별일 아닌 양, 당연하다는 듯, 거부반응 없이 종교행사에 참여한다는 건 이곳이 동티모르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이슬람 국가에 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문

부활절 행사

MANAS

화적인 차이를 느꼈어요. 긍정적으로요! 문화가 단지 삶의 생활방식이 아니라 종교 행사가 될 수도 있구나. 한국에서 어렵사리 기독교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은아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현도:부활절 당일은 아니었지만 부활절 행사가 오후에 있다는 안내와 함께 오후에 함께 행사를 준비할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았고 우리의 오케이 사인과 부활절 행사는 시작되었어요. 사실 성당에도 가봤기 때문에 종교를 믿지 않는 내가 또 행사를 참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들기도 했지만 어차피 오후 센터 출근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행사이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해보기로 했죠. 센터에 있는데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청년들과 아이들이 센터에 모이는 모습을 보니 제가 출근 하던 센터의 모습과 달라 보이기도 했어요. 항상 센터에 오던 아이들도 오늘은 행사가 있으니 자신들의 가장 좋은 옷을 차려 입고 오는 모습을 보니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서로를 소개하다 보니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행사를 시작하니 마을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신나서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팀원들과도 서로 이야기하



부활절 행사

MANAS

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보니 해가 지고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행사 준비 전부터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뛰어 놀다가 행사까지 끝내고 나니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우리가 행사도 즐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다는 사실에 만족스럽고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형규:이번 주에 부활절이 있다. 센터에서도 부활절을 맞아 인근 주민들과 함께 'Biasakra(십자가의 길)'행사를 하기로 했다. 부활절은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고 종교생활을 시작한 날이지만 신앙심이 부족하여 3년째 교회를 멀리하고 있으니 이래저래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출국 전 티모르의 90센트 넘는 인구가 가톨릭 신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참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번 부활절 행사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집집마다 아이들은 깨끗이 목욕을 하고 가장 멋지고 예쁜 옷을 입고 왔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청년들과 어르신들까지 많은 분들이 깔끔하게 차려 입고 나오셨다. 더운 날씨에 땀에 젖어 있던 나로써는 뭔가 부끄럽고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만큼 현지 마을 분들이 부활절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나도 이런 분위기에 동화되어 나무 십자가를 직접 들고 걷는 리스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십자가를 둘러맨 사람을 선두로 마을 사람들 모두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뒤따라 걷기 시작했다.마을 인근 바닷가를 시작으로 마을전체를 돌며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고 그분의 희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떼뚱어로 성경을 읽고 노래를 불러서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직접9번째로 십자가를 매고 걸으면서 그 동안 내 신앙생활에 대한 반성을 하고 마을 사람들과

부활절 행사

MANAS

일치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 종교행사는 나에게 있어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좀 더 마을 속으로 스며드는 시간이 되었다.

동윤: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라서 처음에는 약간 부담감도 느꼈었지만 또한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는 생각도 들었어. 또 이번 부활절 미사는 현지 마을 주민들과 센터에 오는 아이들과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욱 새롭기도 했지. 센터에 올 때 장난기 많고 활발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예쁜 옷을 차려 입고 진지한 표정과 의젓한 모습으로 부활절 미사를 드리는 모습이 색다르게 보이기도 했어. 처음은 덥고 벌레도 많고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 손을 잡고 마을 전체를 돌며 주민들과 함께 하다 보니 나도 이 마을의 주민이 된 듯한 느낌도 들었지.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PINTA LAI!

What did you do? Imi halo saida? MANAS

아띠들은 낡은 센터 교실의 벽을 페인트칠하기로 Xefi와 약속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교실 벽을 페인트칠하러 센터로 향했어. Xefi와 함께 센터에 도착한 우리는 현지 친구들과 페인트칠을 준비했어. 함께 페인트칠도 하고 점심도 먹고 사진도 찍으며 현지 친구들과 부쩍 친해진 느낌을 받았지. 약 5시간의 페인트칠로 한 층 깨끗해진 센터 교실을 만들 수 있었어. 아띠들은 보람찬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지.

은아: 페인트 칠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되었어요. 힘이 많이 들면 어떻게 하지? 한국에서 벽지를 붙히는 작업을 해 본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고 피곤했거든요. 알고보니 우리가 매일 공부하는 교실만 칠하면 되는 거라서 걱정을 덜었어요. 작업 초기에는 현지인 친구 아지우와 그의 친구들 2명이 도와주었어요. 사실 도와주는 건 둘째치고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한국에는 어떤 노래가 유행하는지, 티모르에는 태권도, 가라데 등 격투기 종목 협회가 몇 개 있다며, 한국말로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저건 어떻게 말하는지 물어보며 일을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열심히 알아듣고 얘기해주려고 했어요. 영어도 섞어서. 하지만 아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죠. 묵묵히 일을 하고 점심으로 도시락을 먹었어요. 인도네시아식 차도 마셨어



PINTA LAI!

요. 이 음료를 식당에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이렇게 달고 무슨 맛인지 모를 차는 왜 마시는 거지? 하며 한없이 비판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날 먹은 차는 꿀맛이었어요. 갈증을 이렇게 해소해주는 음료가 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봉지 더 시원하게 들이켰어요. 휴식을 즐기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흰색을 먼저 칠하고 파란색을 칠하는 작업이었는데, 흰색은 수성페인트를 사용해 물만 넣어 발라 약간 묽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발리는 게 맞는가? 반면에 파란색은 유성페인트라 신나게 신나를 들이 붓고 페인트를 섞으니 이렇게 잘 발리는 물감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잘 발렸어요. 옷에 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바르고 또 발랐어요. 다 칠하고 일이 끝났나 싶었지만, 역시 일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정리겠죠? 페인트가 흘러 바닥을 더럽히지 않도록 깔아놓은 신문지들을 한 곳에 모아 버리고, 이리저리 발을 옮기며 남긴 발자국도 쓸어 버리고. 페인트칠 못지 않게 마지막 정리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 온 몸 구석 구석 이리저리 묻어버린 페인트를 닦아내며 신나게 샤워를 했어요. 뿌듯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현도: 페인트칠은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과 떼뚱어 수업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활동이었어요. 총장님께서서는 부활절 휴일 기간 동안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교실의 페인트 칠을 해보라는 제안에 시작하게 되었지요. 다들 첫 페인트칠이라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한국 가서 페인트칠해도 되겠다는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재미있게 일을 해나갔어요. 사실 다른 해외봉사단체나 라온아띠 다른 기수들이 했던 페인트칠 처럼 문구를 새겨 넣거나 그림을 예쁘게 새겨 넣지는 못했지만 동티모르에서

PINTA LAI!

우리에게 첫 친구가 되어주었던 Aziu라는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들며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점심도 함께 먹었던 추억이 생겨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페인트칠이었어요. 페인트칠을 하면서 현지 간사님께서 Aziu에게 너는 항상 라온아띠들이 올 때마다 페인트칠도 하고 굿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자 Aziu는 그래도 자기는 괜찮다고,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자기는 이렇게 함께 일하는 시간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페인트칠 하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사실 항상 센터에 출근 할때 마다 앉아서 우릴 맞이해주던 친구라 우리에게 있어 센터에서 항상 만날 수 있는 그저 당연한 친구라고 생각되었던 Aziu에게 들은 이야기라 괜히 마음이 뭉클해짐을 느꼈어요. 사실 아시아의 친구가 되고자 했던 라온아띠의 마음가짐을 잠시 잊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센터에서 만나게 된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을 정말 소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수 있었던 페인트칠이었어요. 페인트칠을 하며 흘린 땀만큼 내 마음의 따듯함이 더해지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활동이었어요.



PINTA LAI!

형규: 4월에 본격적으로 수업진행을 하기 전, 우리가 쓸 교실을 페인트 칠하기로 했다. ORASIO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의 위쪽은 흰색, 아래쪽은 파란색으로 도색하기로 했다. 센터 축구부 친구들도 우리를 도와 주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동티모르에 온지 한달 만에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 봉사 활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의 일을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팀원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페인트 칠을 하였지만 업무를 분담하고 각자 꽤 능숙한 손놀림으로 열심히 페인트칠하였다. 여수에서 지역 훈련 할 당시 우리를 단련 시켜주었던 각종 '노동 체험'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우린 자연스러웠고 무사히 완수 하였다. 물론 몇몇 부분은 색이 빠져 나오고 삐뚤었지만 새롭게 칠해진 교실을 보니 만족스러웠다. 특히 끝까지 우리를 도와줬던 센터 축구부 친구 AZIOU와 함께 마칠 수 있어서 더욱 보람차고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

동윤: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휴식도 잠시 우리는 센터에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 아침부터 센터로 향했죠. 처음으로 해보는 페인트 칠이라 재미있기도 하고 서툴기도 했지만 계속 칠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페인트 칠의 신이 되어있었죠. '아지우' 라는 친구와 함께 페인트 칠을 했는데 하루 종일 같이 페인트 칠도 하고 밥도 먹고 함께 하다 보니 조금 가까워 질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아지우에 대해서 이것저것 테뭉어로 물어보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사진도 찍으며 즐겁게 페인트 칠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몸은 조금 힘들지만 페인트칠을 다하고 나서 더 예뻐진 센터 교실을 보니 괜히 뿌듯해지기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해서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작업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AD>

25centavos의 여유,

영혼을 울리는 사운드

사람 '향기' 나는 차 안

살아 숨쉬는 동티모르의 열기..

Mikrolet

3월 특집기사
<떼뚝 클라쎬 Tetum Klase>

<떼뚝 클라세 Tetum Klase>

MANAS

아띠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센터로 출근해서 10시부터 11시 30분 까지 Maun Julio에게 떼뚝어를 한 Chapter씩 배워 나가고 있다. Maun Julio는 현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동티모르의 인재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아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40분 가량 수업 후 5분 간의 쉬는 시간을 준다. 책은 TETUN LANGUAGE COURSE 2011년판을 사용한다. 떼뚝어 수업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무단 출입하는 경우가 잦다.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공부하는 아띠들을 쳐다보고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 지루해지면 나간다. 수업의 진행방식은 Chapter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본 후 다이얼로그로 넘어가는데 우리 팀 현도가 가장 유창하게 읽는다. 뜻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게 함정이다. Maun Julio는 대화 내용 중에 지역이름이 나오면 그 지역에 대한 특징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곤 한다. Maun의 출신 지역부터 우리가 놀러 갈 지역까지 다양한 동티모르의 면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이 수업은 4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문의 : <http://www.raonatti.org>, MANAS 담당자 앞)

<수강생 후기>

실용적인 떼뚝, Maun Julio와 함께해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동윤, 22세

티모르 셀레브리티들이 즐서서 듣는 강의! -서울시 노원구, 송현도, 25세

온몸으로 공부하게 돼요~ 적극 추천! -대구광역시 달서구, 강형규, 26세

떼뚝어가 가장 쉬웠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강은아, 21세

<떼뚝 클라세 Tetum Klase>

MANAS



<광고>

수강생 모집

코리아 클라씨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강의 / 맞춤식 교육 / 소수정예반 운영

유동적인 시간 조율 / 영어를 병행한 알기 쉬운 설명



창간호 특별 부록
<다같이 배워볼까요 떼똥?>

다같이 배워볼까요 떼뚱?

MANAS

Bondia : 안녕하세요? (아침인사)

Botardi : 안녕하세요? (점심인사)

Bonoiti : 안녕하세요? (저녁인사)

Mane : 남자

Feto : 여자

Gosta : 좋아합니다.

Hadomi : 사랑합니다.

Deskulpa : 미안합니다.

La buatida : 괜찮습니다. (It's Okay, No Problem)

Obrigadu/-a : 감사합니다.

Nada : 괜찮습니다. (You're welcome)

*Manas : 뜨거운, 더운

(*본 잡지의 제목인 MANAS는 '우리 생애의 가장 뜨거운 나날들'을 보내는 우리들의 일상들을 담아내었다는 의미로, 뜨겁게 5달을 살고 가겠다는 포부 또한 담겨 있습니다.)